

# 外國人投資企業의 生産性效果 分析

金 承 墳

(前 本院 研究委員)

◇ 要 約 ◇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외국인투자가 한국의 산업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소유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다. 둘째,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양(+)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생산성 파급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이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전수의 전제조건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소유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가 국내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 데는 아직 장애요인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경쟁규율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기술 파급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시사점은 어떻게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경쟁에서 낙오한 기업의 퇴출을 확실히 제도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경쟁압력이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반경쟁적 관행 또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경쟁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산업입지정책의 효율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기술이전 및 확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I. 序 言

외환위기 발생 이후 한국은 위기극복의 수단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정부 노력의 이면에는 외국인투자가 외화유입, 경기부양 및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당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최근의 경제상황은 외국인투자의 이러한 역할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예상되는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투자감소 및 실업증가를 유발하여 민간소비 및 투자의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도 보호주의의 강화 및 환율절상으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도 국내기업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국인투자는 투자증가, 고용창출을 통한 소비증가, 외국기업의 마케팅채널을 이용한 수출증가 등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자산 및 사업 매각을 활발하게 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외국인투자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이전, 시장경쟁의 증가 등을 통해서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국의 외환위기가 거시정책의 실패, 금융감독의 소홀 등 이제까지 잘 알려진 요인 외에 실물생산부문의 생산성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가 한국의 산업생산성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는 외국인소유 여부에 근거한 데이터가 부족했던 데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데이터를 통한 미시적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는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인기업으로 구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고유 우위의 생산성효과 및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실증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에 대해 고찰하고, 제Ⅲ장에서는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에 대한 기존의 계량 연구를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기업데이터에 대한 설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규모, 비중 및 생산성을 내국인기업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제Ⅴ장에서는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를 추정하고, 제Ⅵ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 Ⅱ. 外國人投資의 生産性效果에 대한 理論的 考察과 既存研究

### 1. 理論的 考察

외국인투자가 투자유치국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전에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를 이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이 높은 생산성을 갖는다면 외국인투자는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산업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투자는 간접경로를 통해 국내산업의 생산성, 시장경쟁, 기술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에서 경쟁이 증가하면 기업은 보다 효율적인 생산방법을 채택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에 실패했을 때는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시장점유 또는 이윤의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기술능력이 향상되면 생산성이 증가한다.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는 외국인투자가 시장경쟁 및 기술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본장의 논의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인기업의 생산성 차이에 따른 직접적 생산성효과는 별개로 언급하지 않고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논의하기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내국인기업과 두 가지 면에서 다르다. 우선 기업고유의 우위를 형성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가져와서 국내시장 사정에 더 정통한 내국인기업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진출은 기존의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점유 및 이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유발한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종류의 파급효과를 가져와서 국내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생산성 파급효과는 다국적기업의 진입 또는 활동이 국내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이러한 혜택의 가치를 완전히 내재화시킬 수 없을 때 발생한다. 국내기업이 국내시장에서 활동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하는 기술을 모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국내시장의 경쟁을 더욱 활발하게 하여 국내기업으로 하여금 현재의 기술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치열해진 경쟁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속한 산업이나 기타 산업에서 공급자(supplier)나 고객(customer)으로 하여금 새롭고 효율적인 기술을 추구하도록 한다.

생산성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첫째 이유는 다국적기업이 사용하는 기술이 국내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기술매매시장의 거래비용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자주 직접투자를 선호하는데, 최신 기술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즉, 직접투자를 통해 도입되는 기술은 라이선싱을 통해서도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기업은 모방을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이러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이유는 규모의 경제, 높은 초기 자본비용, 광고 등 다국적기업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다국적기업의 이러한 특성은 진입장벽이 높고 집중도가 높으며 경쟁 부족으로 효율성이 낮은 산업의 특성이기도 하다. 이러한 산업에 국내기업이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은 이러한 산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진입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진입장벽이라면 다국적기업은 해외자회사를 조정하여 특정 활동을 일부 지역에 집중시켜 이를 극복할 수 있다. 높은 자본비용이 진입장벽이라면 다국적기업은 국내기업보다 우월한 자금력을 이용하거나 국제 자본시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제품차별화 및 기술에 관련된 진입장벽 또한 제품차별화 및 기술능력을 갖고 있는 다국적기업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독과점적인 산업에 다국적기업이 진입하는 것은 경쟁의 수준을 증가시키고 기존 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유도한다. 물론 다국적기업의 진입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국내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다국적기업의 진입은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를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는 다국적기업이 모든 국내기업을 능가하여 기존의 과점구조보다 더 나쁜 독점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 간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다국적기업의 진입은 기존의 신사적 경쟁체제(gentlemanly competition)를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가 초래하는 시장구조 형태에 상관없이 외국인투자는 기업 간 경쟁을 자극하고 시장성과를 향상시킬 가능성이 크다.<sup>1)</sup> 이하에서는 외국인투자가 투자유치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여러 파급효과를 구분하여 설명한다.

#### 가. 訓練 및 轉職

다국적기업 모회사의 자회사로의 기술이전은 기계장비나 파견경영자 및 기술자에게 체화될 뿐만 아니라 현지인력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훈련은 생산직에서 관리자 및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직위에서 이루어진다. 훈련의 범위는 필요한 기술에 따라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 세미나 등 다양하다. 비록 고위직은 초기에 본사 파견 인력으로 충당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지인의 비중이 늘어난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동안 취득한 여러 기술은 피고용자가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확산된다. 선진국 및 개도국에서는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이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Gerschenberg(1987)는 케냐의 41개 제조업체의 최고 또는 중간경영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국적기업이 현지기업보다 많은 훈련

1) 경쟁의 증가가 이윤동기보다 기술변화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데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 경쟁으로 인한 소멸의 위협이 이윤확보의 가능성보다 기술향상을 유인하는 데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을 제공함을 지적했다. 경영자는 다국적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여 노하우의 파급에 기여했다. 단, 이동성은 다국적기업의 경우에 더 낮았다. Katz(1987)는 멕시코의 경우 현지기업의 경영자가 주로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에서 일했거나 훈련받은 경험이 있음을 지적했다.

#### 나. 展示 및 競爭

외국인투자의 순수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에 대한 사례 연구에 의하면 전시는 생산성 파급의 중요한 경로임을 알 수 있다. Riedel(1975)은 1960년대에 홍콩 제조업 수출에서 다국적기업으로부터의 전시효과가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Mansfield and Romeo(1980)는 다국적기업의 현지자회사에 이전되는 기술이 비교적 최신이기 때문에 국내경쟁자의 모방노력을 자극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순수 전시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유는 전시효과가 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국내기업은 다국적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행위를 모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일부 사례연구는 전시와 경쟁의 복합효과에 관해서 이루어졌다. Langdon(1981)은 케냐의 비누산업에서 다국적기업의 진입은 기계화된 생산을 도입했고 현지기업은 수제작 방법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움을 인식하여 기계화 기술을 채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개념적으로 이러한 경쟁효과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국내 경쟁자의 진입이 어려운 산업과 국내기업 간의 경쟁이 제한적인 산업에 다국적기업이 진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모방 또는 새로운 기술의 채택에 관해서 전시효과와 경쟁효과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사례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방이 일어나기 전에 현지기업이 경쟁에 단기



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현지기업의 즉각적인 대응은 비용관리를 철저히 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X-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국내기업의 이러한 대응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효과는 초기 비효율성이 많은 개도국에서 클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 국내기업은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는 반면에 개도국 기업은 경쟁력이 취약하여 생산성 향상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국내기업간의 제휴 또는 외국기업과의 합작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다. 産業構造

외국인투자의 경쟁효과에 대한 관심은 외국인투자와 산업구조에 관한 연구로 이어졌다. 핵심 논쟁은 다국적기업의 진입/활동이 산업구조를 설명하는지 아니면 산업구조가 다국적기업의 진입여부를 결정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순수 내국인기업보다 산업 내 기업의 수를 제한하는 비용 관련 진입장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우월한 경향이 있다. 진입장벽은 제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높은 자본비용, 생산부문의 규모의 경제, 광고, 판매 및 기술개발부문의 규모의 경제 등 비용 관련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다국적기업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이러한 구조적 진입장벽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업고유의 자산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다. 외국인기업은 내국인기업은 부담하지 않는 외국인비용을 부담한다. 이러한 비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기업은 소유권우위 형태의 경쟁우위가 필요하다. 이러한 우위는 기술적, 조직적 및 판매적 지식, 영업권, 상표 등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진입장벽과 관련이 있다. 다국적기업은 유치국 기업보다 고비용 관련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산업

의 국내시장에 진출할 능력이 우월하다.

개념적 및 실증적으로 외국인기업의 진출이 집중도가 높은 산업에서 보다 현저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기업은 고비용 관련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우위를 소유하므로 시장에 진입하기가 내국인기업에 비해 용이하다. 여러 실증연구는 외국인기업의 진출과 유치국 산업의 집중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였다.

외국인투자와 집중도는 공통 원인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양자 간의 인과적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제3의 요소가 양자 간의 양(+)의 관계를 유발했을 수도 있다. 차별화된 제품산업 및 R&D집약적 산업이 집중도가 높고 외국인기업도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외국인투자가 집중도 높은 산업에서 주로 이루어지더라도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가 없었을 가상적 상황보다 집중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 외국인투자와 집중도의 상관관계에 내재된 인과적 메커니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진입효과(at-entry effect)와 진입 후 효과(post-entry effect)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고전파적 견해는 외국인투자를 통한 시장진입은 유치국의 시장집중을 감소시키고 경쟁을 증가시킨다고 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다음의 몇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다국적기업의 시장진입은 신설투자가 아닌 현지기업의 인수합병의 형태로 자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의 수에는 변화가 없게 된다. 특히 인수되는 현지기업이 인수가 없었어도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둘째,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기존의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산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광고,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제품차별화 장벽을 높여서 그들이 진입한 산업의 진입장벽을 높일 수도 있다.

진입 후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신고전파적 견해는 다국적기업의 진입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쟁이 증가한다고 본다. 다국적기업의 초기 진입이 추가적인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거나 현지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으로 현지기업이 더욱 경쟁적이 됨을 그 이유로 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는 다국적기업의 행위와 이들에 대응하는 내국인기업의 행위가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국적기업은 우월적 요소를 이용하여 현지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국적기업의 진입으로 인해 국내기업은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방어적 합병을 하기도 하고 다국적기업의 반경쟁행위가 경쟁을 제한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선진국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외국인투자가 시장집중을 완화시켰거나 변화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반면에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시장집중효과는 심화시킨 경우와 완화시킨 경우의 상반된 경우로 나타났다.<sup>3)</sup> 결론적으로 다국적기업과 시장집중의 관계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상의 논의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은 경쟁이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인데, 이것이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 우선 규모의 경제가 산업생산성의 중요한 결정요인일 수 있다. 외국인투자가 시장집중을 심화시키는 경우 기업의 평균규모의 증가로 인해 자원배분 및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가 경쟁감소의

2) 오스트레일리아(Brash[1966]), 캐나다(Safarian[1969]), 프랑스(Fishwick[1982]), 영국(Steuer et al. [1973]), 미국(Knickerbocker[1976]).

3) 외국인투자가 시장집중을 심화시킨 경우: 브라질(Willmore[1989]), 말레이시아(Lall[1979]), 멕시코(Blomstrom[1986b]); 시장집중을 완화시킨 경우: 브라질(Evans[1977]).

효과를 증가하는지 여부는 시장 특성 및 무역정책과 관련이 있다. 기업수가 30개에서 20개로 감소하는 것보다 3개에서 2개로 감소하는 것이 경쟁여건을 해칠 가능성이 크고 시장집중의 부정적 효과는 국제무역에 의한 경쟁으로부터 보호된 산업에서 더 클 개연성이 있다.

외국인투자가 유치국 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을 증가시켰는지 아니면 감소시켰는지를 외국인투자와 시장집중의 관계로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시장집중은 시장경쟁의 결과일 수도 있다. 외국인투자가 기존의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들에게 경쟁압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이들 간의 경쟁의 결과 시장이 더 집중될 수도 있고 이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가 시장집중을 심화 또는 완화했는가에 상관없이 기존의 기업들에게 경쟁압력을 제공하여 이들이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생산방법을 추구하게 할 개연성이 크다.

#### 라. 前後方 連繫

다국적기업의 현지자회사는 현지 공급자와의 관계(후방연계)와 고객과의 관계(전방효과)를 통해서 유치국 경제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후방연계에 대해서 다국적기업의 현지자회사가 공급자로 하여금 생산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에게 기술 지원을 하는 등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가 있다<sup>4)</sup> 다국적기업의 현지부품 구매가 후방연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구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sup>5)</sup> 다국적기업의 현지자회사와 현지기업 간의 협력으로 인한 연계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다국적기업의 엄격한 품질요구를 만

4) Lall(1980)과 Behrman and Wallender(1976) 참조.

5) McAleese and McDonald(1978) 참조.

족시키는 과정에서도 후방연계효과가 나타난다.<sup>6)</sup> 한편, 전방연계에 대해서는 후방연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거가 많지 않다.<sup>7)</sup>

## 2. 既存 研究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에 관한 계량분석은 크게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직접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성이 내국인기업과 뚜렷하게 차이가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하는 국내산업 전체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리키고, 간접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활동이 기술이전·확산 또는 경쟁에 영향을 미쳐 국내산업에 생산성 파급효과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본절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직접효과에 관한 연구와 간접효과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 가. 直接效果

우선 직접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인기업의 생산성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평가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성이 내국인기업의 생산성보다 높으면 외국인투자가 국내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관한 분석은 생산요소의 사용, 부가가치, 외국인소유에 따른 기업분류 등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러한 데이터가 모든 국가에서 이용 가능하지는 않다.

Willmore(1986)는 브라질의 제조업에서 기업규모가 유사한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인기업 282쌍을 추출하여 생산요소 사용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기업에 비해

6) Brash(1966)와 Katz(1969) 참조.

7) McAleese and McDonald(1978) 참조.

부가가치율(부가가치/생산) 및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mbunlertchai and Ramstetter(1991)는 태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투자기업에 비해 노동 및 자본생산성이 높음을 보였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노동 및 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 나. 間接效果

간접효과에 대한 계량분석은 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이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간접효과는 경쟁증가, 기술이전·확산, 산업 간 연계 등을 통해 발생한다. 외국인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을 증가시켜 내국인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인 생산방법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을 촉진적인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반하는 신기술 및 노하우로부터 창출되는 외부효과의 활용에 기인한 바 크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기술 및 신공정을 국내에 도입한다면 국내기업은 신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기술의 확산은 전시효과나 내국인피고용자의 외국인기업으로부터 내국인기업으로의 전직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외국인투자의 외부효과 추정에 있어서 산업 간 연계효과도 중요하나 통계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많지 않았다. Caves(1974)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이 국내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외국인투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은 결과

를 보였는데, 이 결과는 자본집약도를 통제하지 않은 데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Globerman(1979)은 캐나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Caves(1974)와 유사한 연구를 하였는데, 1인당 부가가치에 대한 추정에서 자본집약도를 통제하였다. 결과는 외국인기업의 진출이 양(+의 효과를 보였으나 대체로 유의성이 낮았다.

이들의 연구 이후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효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결과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Blomstrom and Persson(1983)은 멕시코 제조업을 대상으로 자본집약도, 규모효과 및 노동의 질을 통제하여 외국인투자의 산업별 비중이 내국인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외국인투자의 산업별 비중은 양(+의 생산성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내국인기업으로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Blomstrom(1986a)은 외국인투자의 비중이 해당 산업의 구조적 효율성에 양(+의 효과를 가짐을 보였다. Haddad and Harrison(1991)은 모로코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를 추정하였는데, 외국인투자는 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수준효과(level effect)를 가졌으나 증가효과(growth effect)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외국인소유권은 기업의 생산성에 양(+의 효과가 있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별 비중은 기업전체 또는 내국인기업의 생산성에 양(+의 효과가 있었다. 반면에 외국인소유권은 생산성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효과를 가졌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별 비중 역시 기업전체 또는 내국인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를 보였다.

### Ⅲ. 外國人投資企業의 比重 및 生産性

본 연구는 한국신용정보의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1991년부터 1997년까지의 내국인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외국인의 지분이 1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또는 허가)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sup>8)</sup> 연도별로 분석대상 기업 수는 기업의 등록연도 및 자료 보고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sup>9)</sup> 한편, 산업별 분석을 위해 전체산업을 14개 산업으로 구분하였다.<sup>10)</sup> 본장에서는 1992년과 1997년을 중심으로 분석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규모, 비중 및 생산성을 내국인기업과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外國人投資企業과 內國人企業의 一般 比較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인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크고 기술 관련 활동도 더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의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sup>11)</sup> 기업의 평균매출,

8)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기업현황』, 1998 참조.

9) 기업의 수는 기업의 등록연도 및 보고대상 연도가 상이하여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 본고의 분석대상 기업수(내국인기업수; 외국인투자기업수)는 연도별로 다음과 같다: 1991년 6,624(6,253;371), 1992년 4,729(4,325;404), 1993년 5,081(4,682;399), 1994년 5,461(5,028;433), 1995년 5,134(4,721;413), 1996년 4,956(4,541;415), 1997년 5,384(5,038;346).

10) 1차산업, 음·식료품, 섬유·신발, 목재·종이, 출판·인쇄, 석유, 화학, 비금속, 금속, 기계장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제조, 서비스업.

11) 기계장비는 제외.



평균부가가치, 평균고용 및 평균유형자산 측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기업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평균R&D, 평균교육훈련비 및 평균로열티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기업에 비해 더 많이 지출했다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 관련 활동을 더욱 활발히 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이 행하는 R&D는 주로 디자인 및 개발로서, 주요 목적은 제품을 국내시장의 수요에 맞도록 적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R&D는 외국모회사가 국내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시장점유를 확대하는 데에 기여한다. 외국모회사는 이러한 R&D가 본국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국내시장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표 1>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인기업의 일반적 비교(제조업)

(단위: 백만원, 명)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평균매출	74,575	36,039	82,937	31,176
평균부가가치	18,769	9,035	18,951	6,830
평균고용	761	447	540	280
평균R&D	880	448	1,835	318
평균교육훈련비	178	60	194	35
평균로열티	213	63	369	22
평균유형자산(설비)	24,532	15,839	33,163	13,848
평균투자	-1,628	5,457	848	-4,926

주: 1992년에는 내국인기업 4,325개와 외국인투자기업 404개, 1997년에는 내국인기업 5,038개와 외국인투자기업 346개를 표본으로 사용하였음.

자료: 한국신용정보.

12) Fairchild and Sosin(1986)은 라틴아메리카를 대상으로 다국적기업 현지자회사의 R&D 총지출이 국내기업과 비슷했음을 지적했다.

R&D를 하기도 한다. 이는 그들이 수행하려는 R&D에 있어서 국내 여건이 우수한 데에 따른 것이다.

## 2. 外國人投資企業의 國民經濟 比重<sup>13)</sup>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전체 매출, 부가가치, 고용 및 유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약 20% 정도이며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다. R&D, 교육훈련비, 기술도입 등 기술 관련 활동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이 이보다 현저히 크며 연도별로 크게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에서 외국인투자의 비중이 1997년 기준 59.2%를 차지한 반면, 섬유·신발, 금속, 음식료품, 기계장비 등

〈표 2〉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민경제기여도(제조업)

(단위: %)

	1992년	1997년
매출	20.5	21.0
부가가치	20.6	21.7
고용	19.0	20.6
R & D	19.7	36.5
교육훈련비	26.9	35.6
로열티	29.7	62.5
유형자산	16.2	19.3

주: 1992년에는 내국인기업 4,325개와 외국인투자기업 404개, 1997년에는 내국인기업 5,038개와 외국인투자기업 346개를 표본으로 사용하였음.

자료: 한국신용정보.

13)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지분이 10% 이상이거나, 10% 미만이라도 경영에 참여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민경제비중은 국내총투자 대비 외국인투자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국인지분이 10% 미만인 경우 경영참여 목적의 외국인투자를 분류하는 데에 자의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재정경제부에서 발간한 『외국인투자기업현황』(1998)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표 3〉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별 고용비중

(단위: %)

	1992년	1997년
음 식 료 품	7.2	7.9
섬 유 · 신 발	5.9	5.6
목 재 종 이	14.6	14.0
석 유	7.2	48.2
화 학	11.2	13.1
비 금 속	12.8	16.5
금 속	7.6	6.1
기 계	8.4	8.6
전 기 전 자	37.4	59.2
운 송 장 비	36.1	24.1
기 타 제 조	13.8	4.2
서 비 스 업	5.1	7.3

주: 1992년에는 내국인기업 4,325개와 외국인투자기업 404개, 1997년에는 내국인기업 5,038개와 외국인투자기업 346개를 표본으로 사용하였음.

자료: 한국신용정보.

에서는 외국인투자의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전기 전자산업은 1992년에 비해 1997년에 외국인투자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 3. 外國人投資企業과 內國人企業의 生産性 比較

제조업의 경우,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부가가치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노동의 질을 나타내는 1인당 인건비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자본집약도를 나타내는 노동장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최근에 크게 증가하여 내국인기업의 수준을 넘어섰다. 자본생산성을 나타내는 총자산 대비 부가가치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크며, 고부

〈표 4〉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인기업의 생산성 지표(제조업)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24.7	20.2	35.1	24.4
1인당 인건비(백만원)	12.6	10.2	17.7	12.4
노동장비율(백만원)	32.2	35.4	61.4	49.4
부가가치/총자산(%)	25	21	19	17
부가가치/매출(%)	25	25	23	22
R&D/매출(%)	1.18	1.24	2.21	1.02
로열티/매출(%)	0.29	0.17	0.45	0.07
교육훈련비/매출(%)	0.24	0.17	0.23	0.11
1인당 교육훈련비(백만원)	0.233	0.135	0.359	0.125

가가치의 정도를 나타내는 매출 대비 부가가치에 있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기술 관련 활동을 나타내는 매출 대비 R&D, 매출 대비 로열티, 매출 대비 교육훈련비 등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대적으로 크며 연도별로 증가해 왔다. 이는 내국인기업의 기술 관련 활동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 Ⅳ. 外國人投資의 生産性效果 分析<sup>14)</sup>

##### 1. 外國人所有權의 生産性效果

제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소유권(foreign ownership)이 기업의

14) 본고의 분석방법은 기업데이터를 이용하고 외국인투자의 산업별 비중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Haddad and Harrison(1991)과 유사하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재정경제부의 『외국인투자기업현황』(1998)과 한국신용정보의 기업현황 자료를 일일이 비교해서 식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일종의 pooled data이나 기업의 등록연도 및 자료 보고 여부에 따라 관련 변수의 연도별 값의 유무가 결정된다.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가. 模 型

본 실증분석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첫 번째 관계는 외국인소유권이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다. 즉, 외국인소유권의 유무와 기업의 노동생산성의 실증적 관계를 살펴본다. 분석대상 모델은 다음의 (1)과 같다.

$$VL = f(SALES, FOREIGN) \dots\dots\dots (1)$$

종속변수 VL은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로서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의미한다.<sup>15)</sup> 독립변수 SALES는 기업의 매출액으로서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SALES의 계수가 양(+)이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커진다는 것으로 노동 분업의 증가 또는 규모의 경제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독립변수 FOREIGN은 더미변수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여부를 가리킨다. FOREIGN의 계수가 양(+)이면 외국인소유기업이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증분석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두 번째 관계는 생산방법, 인력구조, 교육훈련, R&D, 기술도입 등의 효과를 통제 한 후 외국인소유권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이다. 분석대상 모델은 다음의 (2)와 같다.

$$VL=f(SALES, KL, WL, EL, RD, TI, FOREIGN) \dots\dots\dots (2)$$

독립변수 KL은 자본집약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유형고정자산을

---

15) 부가가치=경상이익+인건비(판매 및 관리)+노무비(제조)+이자비용-이자수입+임차료(판매)+임차료(제조)+세금과공과(관리)+세금과공과(제조)+감가상각비(관리)+감가상각비(제조)

종업원수로 나누어 구해진다. 일반적으로 자본집약도는 노동생산성에 양(+ )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WL*은 노동의 질(labor quality)을 나타내는 변수로 종업원 1인당 인건비이다. 이의 계수는 양(+ )일 것으로 기대된다 *EL*은 종업원 1인당 교육훈련비로서 종업원이 교육훈련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가를 나타낸다.<sup>16)</sup> *RD* 및 *TI*는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을 나타내는 변수이다.<sup>17)</sup> *FOREIGN*의 계수가 양(+ )이면 생산방법, 인력구조, 교육훈련, R&D, 기술도입 등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외국인소유기업이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나. 分析 結果

사용된 추정방법은 일반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으로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의 회귀분석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소유기업은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1)은 산업별 더미변수와 연도별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산업특정적이고 연도특정적인 효과를 제거하였다. 또한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출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기업의 규모가 가져오는 생산성효과를 통제하였다. 결국 산업별 및 연도별 특성과 기업의 규모를 통제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기업에 비해서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회귀분석 (2)에서는 회귀분석 (1)에서 사용한 산업별 및 연도별 더미변수와 매출 이외에 자본집약도, 노동의 질, 1인당 교육훈련 정도, 기술개발투자 및 기술도입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외국인의 소유권의 생산성효과를 추정하였다.

16) 교육훈련비=교육훈련비(관리)+교육훈련비(제조)

17)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경상비)+연구개발비(이연자산), 기술도입비=로열티(판매)+로열티(제조)

〈표 5〉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 I (피설명변수:VL)

	(1)	(2)
<i>intercept</i>	15.45*** (9.26)	3.16* (1.8)
<i>SALES</i>	0.00001*** (10.95)	0.0000059*** (3.97)
<i>KL</i>		0.13*** (44.2)
<i>WL</i>		1.21*** (35.97)
<i>EL</i>		12.75*** (21.39)
<i>RD</i>		0.000012 (0.18)
<i>RD(-1)</i>		-0.0002* (-1.65)
<i>RD(-2)</i>		-0.00015 (-0.66)
<i>RD(-3)</i>		0.0005** (2.14)
<i>TI</i>		-0.0007*** (-2.87)
<i>TI(-1)</i>		-0.00036 (-0.97)
<i>TI(-2)</i>		0.00046 (1.27)
<i>TI(-3)</i>		-0.000037 (-0.17)
<i>FOREIGN</i>	9.24*** (11.69)	4.32*** (5.38)
<i>N</i>	18,602	8,098
$\bar{R}^2$	0.05	0.51

주: \*\*\*는 1% 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추정 결과 외국인소유기업은 노동생산성이 높았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매출, 자본집약도, 노동의 질, 종업원 1인당 인건비 등에 의해 상당부분 설명되었다. 기술개발의 경우 1년 전 시차변수는 음(-)의 효과를, 3년 전 시차변수는 양(+)의 효과를 보였으며 기술도입을 나타내는 로열티는 당기의 변수가 음(-)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인기업에 비해 우월한 요소를 갖고 있으며 우월성의 원천은 기업의 규모, 자본집약도, 피고용자의 질, 교육훈련, 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제외하더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이 갖는 경영 노하우 등에서 찾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2. 外國人投資의 生産性 波及效果

제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의 증가가 내국인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의 증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전체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 가. 模 型

분석대상 모델은 다음의 식 (3), (4)와 같다.

$$VL(d)=f(SALES(d), KL(d), WL(d), EL(d), RD(d), TI(d), FS) \dots\dots\dots (3)$$

$$VL=f(SALES, KL, WL, EL, RD, TI, FOREIGN, FS) \dots\dots (4)$$

식 (3)은 내국인기업의 생산성이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외국인투자비중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VL(d)$ ,  $SALES(d)$ ,  $KL(d)$ ,  $WL(d)$ ,  $EL(d)$ ,  $RD(d)$ ,  $TI(d)$ 은 각각 내국인 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매출액, 자본집약도, 1인당 인건비, 1인당 교육훈련비, 기술개발지출, 로열티를 나타낸다.  $FS$ 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별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산업단위에서 측정된다.  $FS$ 는 매출, 부가가치 및 고용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각 산업의 총매출(부가가치, 고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출(부가가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FS$ 의 계수가 양(+)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내국인기업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외국인투자가 내국인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로는 시장경쟁 증가 또는 내국인기업으로의 기술 이전 및 확산 가능성이 크다.

식 (4)는 내국인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도 포함시켜 외국인투자비중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전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도 산업 내 여타 외국인투자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면 경쟁압력이나 기술이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FS$ 의 계수가 양(+)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산업 내 기업의 생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 나. 分析 結果

사용된 추정방법은 일반최소자승법으로서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18)</sup> <표 6>의 회귀분석에서는 외국인기업의 산업비중이 내국인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을 나타내는 변수로 매출비중, 부가가치비중 및 고용비중을

18)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업데이터는 한국신용정보의 데이터로서 외부감사대상 기업에 국한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사용한 외국인투자비중은 외부감사대상 기업에 국한하여 전체에서 외국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표 6〉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Ⅱ(피설명변수:VL)

	(1)	(2)	(3)
<i>intercept</i>	4.71*** (2.99)	4.68*** (2.97)	4.18** (2.54)
<i>SALES</i>	0.000012*** (6.1)	0.000012*** (6.1)	0.000012*** (6.1)
<i>KL</i>	0.036*** (11.9)	0.036*** (11.9)	0.036*** (11.9)
<i>WL</i>	1.336*** (37.1)	1.336*** (37.1)	1.336*** (37.1)
<i>EL</i>	18.0*** (25.5)	18.0*** (25.5)	18.0*** (25.5)
<i>RD</i>	0.000045 (0.68)	0.000045 (0.68)	0.000045 (0.68)
<i>RD(-1)</i>	-0.00035*** (-3.05)	-0.00035*** (-3.05)	-0.00035*** (-3.07)
<i>RD(-2)</i>	0.00028 (1.16)	0.00028 (1.16)	0.00028 (1.16)
<i>RD(-3)</i>	-0.00017 (-0.65)	-0.00017 (-0.65)	-0.00017 (-0.65)
<i>TI</i>	-0.0008*** (-3.26)	-0.0008*** (-3.27)	-0.0008*** (-3.26)
<i>TI(-1)</i>	-0.0006* (-1.72)	-0.0007* (-1.72)	-0.0007* (-1.73)
<i>TI(-2)</i>	0.0015*** (3.84)	0.0015*** (3.85)	0.0015*** (3.85)
<i>TI(-3)</i>	0.0004* (1.73)	0.0004* (1.73)	0.0004* (1.72)
<i>FS(SALES)</i>	1.95 (0.36)		
<i>FS(VA)</i>		2.0 (0.42)	
<i>FS(L)</i>			7.3 (1.14)
<i>N</i>	6,805	6,805	6,805
$\bar{R}^2$	0.55	0.55	0.55

주: \*\*\*는 1% 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각각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은 양(+)의 계수를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업 내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외국인투자의 기술 파급효과 또는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효과가 한국의 경우 뚜렷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출, 자본집약도, 1인당 인건비 및 1인당 교육훈련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를 보였다. 기술개발의 경우 1년 전 시차변수는 음(-)의 효과를 보였다. 로열티는 2년 전 및 3년 전 시차변수가 양(+)의 효과를 보였고 당기 및 1년 전 시차변수는 음(-)의 효과를 보였다.

〈표 7〉은 외국인투자기업도 포함시켜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이 산업 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것으로서 〈표 6〉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이 양(+)의 효과를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투자의 기술파급효과와 경쟁효과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 자본집약도, 1인당 인건비 및 1인당 교육훈련비는 모두 양(+)의 계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기술개발의 경우 3년 전 시차변수는 양(+)의 효과를 보였고 로열티는 당기변수가 음(-)의 효과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가 미미하다는 상기 분석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시장경쟁압력의 증가 또는 기술이전 및 확산을 통해 나타난다. 상기 분석의 결과만으로는 어떤 경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파급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난 것은 두 가지 채널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우선 외국인투자의 시장경쟁효과가 미미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시장경쟁의 규칙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이 문제

〈표 7〉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Ⅲ(피설명변수:VL)

	(1)	(2)	(3)
<i>intercept</i>	1.11 (0.63)	1.04 (0.59)	0.54 (0.30)
<i>SALES</i>	0.0000056*** (3.78)	0.0000056*** (3.78)	0.0000056*** (3.78)
<i>KL</i>	0.127*** (43.8)	0.127*** (43.8)	0.127*** (43.8)
<i>WL</i>	1.365*** (35.4)	1.365*** (35.4)	1.365*** (35.4)
<i>EL</i>	12.53*** (17.9)	12.53*** (17.9)	12.53*** (17.9)
<i>RD</i>	0.000008 (0.12)	0.000008 (0.12)	0.000008 (0.12)
<i>RD(-1)</i>	-0.00021 (-1.63)	-0.00021 (-1.63)	-0.00021 (-1.64)
<i>RD(-2)</i>	-0.00015 (-0.64)	-0.00015 (-0.64)	-0.00015 (-0.64)
<i>RD(-3)</i>	0.0005** (2.14)	0.0005** (2.15)	0.0005** (2.16)
<i>TI</i>	-0.00068*** (-2.71)	-0.00068*** (-2.71)	-0.00067*** (-2.70)
<i>TI(-1)</i>	-0.0004 (-1.12)	-0.0004 (-1.12)	-0.0004 (-1.12)
<i>TI(-2)</i>	0.0005 (1.35)	0.0005 (1.35)	0.0005 (1.36)
<i>TI(-3)</i>	-0.00006 (-0.26)	-0.00006 (-0.26)	-0.00006 (-0.27)
<i>FOREIGN</i>	3.90*** (4.95)	3.90*** (4.95)	3.89*** (4.95)
<i>FS(SALES)</i>	3.37 (0.61)		
<i>FS(VA)</i>		3.89 (0.79)	
<i>FS(L)</i>			8.64 (1.32)
<i>N</i>	7,881	7,881	7,881
$\bar{R}^2$	0.53	0.53	0.53

주: \*\*\*는 1% 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일 수 있다. 금융시장에 내재된 각종 비효율성 및 과도한 정부개입이 경쟁압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을 막아왔거나 이들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지연해 왔을 수 있다. 또한 국내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반경쟁적인 관행 또는 행위가 경쟁의 증가를 저해했을 수 있다. 실제로 경쟁압력이 실질적인 경쟁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쟁을 규율하는 규칙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기술과급효과가 미미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술의 이전이 피고용자의 전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술과급효과를 저해했을 수 있다. 기술과급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산업입지정책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전시효과가 기술과급에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지정책의 비효율성이 활발한 기술과급을 막았을 수도 있다. 전시효과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거리에 반비례할 가능성이 크다.

### 3. 生産性 變數에 관한 論議

본장의 회귀분석에서는 생산성 변수로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부가가치를 사용하였다. '부분적' 생산성을 나타내는 노동생산성을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가 노동생산성을 생산성 변수로 사용한 Caves(1974), Globerman(1979) 및 Blomstrom and Persson(1983)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경우에 대해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를 추정하고자 한 데에 있다. 한편, 회귀분석에서 노동생산성의 설명변수로 1인당 인건비를 사용한 것이 동시성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노동생산성과 1인당 인건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가 1인당 인건비의 양(+)의 추정계수를 유발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직 노동자 대비 사무직 노동자의 비율은 1인당 인건비와 노동생산성을 공통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실증분석의 초점은 외국인투자기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또는 외국인투자비중 변수이므로 동시성의 문제가 분석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가치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데이터의 제약상 제3의 변수라 할 수 있는 사무직 노동자의 비율 등을 구할 수가 없으므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동시성 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두 시점 간에 차분을 통해 고정효과를 제거하는 방법도 제3의 변수가 두 시점 간에 동일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역시 한계가 있다.

동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변수를 인건비 수준을 고려하여 재정의해 볼 수 있다. 즉, 노동생산성을 1인당 부가가치 대신에 단위 인건비당 부가가치로 재정의해서 회귀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이때의 노동생산성은 노동의 질을 고려한 변수이다. 일반최소자승법을 이용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는 1인당 부가가치를 노동생산성으로 사용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고유의 우위는 양(+)의 효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반면에 외국인투자비중은 양(+)의 효과를 보였으나 유의성이 낮았다.

#### 4. 産業分類에 관한 論議

이상의 분석에서는 제조업을 12개 산업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더미변수와 산업별 외국인투자비중 변수를 사용하였다. 12개 산업으로 분류한 것은 외국인투자통계의 분류에 따른 것으로 대분

〈표 8〉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Ⅳ(피설명변수:VL)

	(1)	(2)	(3)
<i>intercept</i>	1.81*** (21.52)	1.87*** (20.36)	1.76*** (19.86)
<i>SALES</i>	0.0000003*** (3.76)	0.0000007*** (6.33)	0.0000003*** (3.54)
<i>KL</i>	0.0043*** (31.0)	0.0025*** (14.46)	0.0044*** (31.2)
<i>EL</i>	0.011 (0.45)	0.004 (0.14)	-0.018 (-0.68)
<i>RD</i>	0.000003 (0.76)	0.000004 (1.16)	0.000003 (0.79)
<i>RD(-1)</i>	-0.00002*** (-3.40)	-0.000025*** (-3.82)	-0.00002*** (-3.44)
<i>RD(-2)</i>	0.000003 (0.26)	0.00002 (1.42)	0.000003 (0.25)
<i>RD(-3)</i>	0.000024*** (2.05)	-0.000002 (-0.15)	0.000025** (2.07)
<i>TI</i>	-0.000035*** (-2.89)	-0.00005*** (-3.79)	-0.000035*** (-2.81)
<i>TI(-1)</i>	-0.000014 (-0.78)	-0.00004** (-2.03)	-0.000012 (-0.67)
<i>TI(-2)</i>	0.00005*** (2.87)	0.0001*** (4.25)	0.00005*** (2.85)
<i>TI(-3)</i>	0.00002* (1.68)	0.00003** (2.18)	0.00002* (1.73)
<i>FOREIGN</i>	0.13*** (3.42)		0.14*** (3.50)
<i>FS(L)</i>		0.48 (1.32)	0.53 (1.63)
<i>N</i>	8,098	6,805	7,881
$\bar{R}^2$	0.16	0.09	0.16

주 : \*\*\*는 1% 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류에 해당한다.<sup>19)</sup>

산업을 크게 분류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경쟁효과와 기술이전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제조업을 광공업통계 3digit 분류에 따라 61개 산업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전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연도별 더미변수와 산업별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9>에 요약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분석 결과는 산업을 대분류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국인투자기업 고유의 우위는 생산성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졌고 외국인투자비중의 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 V. 要約 및 示唆點

상기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소유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다. 둘째,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양(+)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생산성 파급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이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전수의 전제조건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소유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가 국내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 데는 아직 장애요인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경쟁규율이 확립되지 않았

19) 재정경제부, 『국제투자 및 기술도입 동향』, 각년도.



〈표 9〉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 V(피설명변수: VL)

	(1)	(2)	(3)
<i>intercept</i>	13.54*** (15.83)	14.76*** (14.24)	12.99*** (13.03)
<i>SALES</i>	0.0000048*** (5.45)	0.0000045*** (4.92)	0.0000047*** (5.24)
<i>KL</i>	0.087*** (44.46)	0.068*** (33.75)	0.087*** (43.82)
<i>WL</i>	0.073*** (98.19)	1.064*** (97.59)	1.076*** (96.53)
<i>EL</i>	15.45*** (23.98)	19.80*** (26.46)	17.08*** (24.33)
<i>RD</i>	0.000077 (0.77)	0.00013 (1.16)	0.000069 (0.69)
<i>RD(-1)</i>	-0.00039** (-2.11)	-0.00041** (-2.19)	-0.00037** (-1.97)
<i>RD(-2)</i>	-0.00008 (-0.26)	-0.00011 (-0.30)	-0.0001 (-0.32)
<i>RD(-3)</i>	0.00063** (1.96)	0.00065* (1.66)	0.00065** (2.00)
<i>TI</i>	-0.00049 (-1.59)	-0.00057* (-1.70)	-0.00049 (-1.54)
<i>TI(-1)</i>	-0.00046 (-0.95)	-0.00039 (-0.70)	-0.00052 (-1.06)
<i>TI(-2)</i>	0.00067 (1.38)	0.00088 (1.46)	0.00065 (1.32)
<i>TI(-3)</i>	-0.00019 (-0.60)	-0.00008 (-0.22)	-0.00024 (-0.76)
<i>FOREIGN</i>	3.66*** (3.35)		3.47*** (3.24)
<i>FS(L)</i>		1.11 (0.13)	2.43 (0.32)
<i>N</i>	11,410	9,654	10,927
$\bar{R}^2$	0.60	0.62	0.60

주: \*\*\*는 1% 수준, \*\*는 5% 수준, \*는 10% 수준에서 각각 유의함.

거나 기술파급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시사점은 어떻게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경쟁에서 낙오한 기업의 퇴출을 확실히 제도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경쟁압력이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종 반경쟁적 관행 또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경쟁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산업입지정책의 효율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기술이전 및 확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參 考 文 獻 ◁

- 재정경제부, 『외국인투자기업현황』, 1998.
- 김승진, 『투자인센티브제도의 개선방안』, 정책연구시리즈 99-02, 1999.
- Behrman, J. and H. Wallender, *Transfer of Manufacturing Technology within Multinational Enterprises*, Cambridge, Mass.; Ballinger, 1976.
- Blomstrom, M., *Foreign Investment and Spillover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89.
- \_\_\_\_\_, "Foreign Investment and Productive Efficiency: the Case of Mexico,"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Vol. 25, 1986a.
- \_\_\_\_\_, "Multinational and Market Structure in Mexico," *World Development* 14, 1986b.
- \_\_\_\_\_ and H. Persson, "Foreign Investment and Spillover Efficiency in an Underdeveloped Economy: Evidence from the Mexican

- Manufacturing Industry," *World Development*, Vol, 11, No. 6, 1983.
- Brash, D. T., *American Investment in Australia*, Canberra, Australian University Press, 1966.
- Caves, R. E., "Multinational Firms,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in Host Country Markets," *Economica*, Vol.41, 1974.
- Evans, P., "Direct Investment and Industrial Concentratio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13, 1977.
- Fairchild, L. and K. Sosin, "Evaluating Differences in Technological Activity between Transnational and Domestic Firms in Latin Americ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22, 1986.
- Fishwick, F., *Multinational Companies and Economic Concentration in Europe*, Farnborough, Gower, 1982.
- Gerschenberg, I., "The Training and Spread of Managerial Know-H: A Comparative Analysis of Multinational and Other Firms in Kenya," *World Development*, Vol.15, 1987.
- Globerman, 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Spillover Efficiency Benefits in Canadian Manufacturing Industrie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12, No. 1, 1979.
- Haddad, M. and A. Harrison, "Are there Dynamic Externalities from Direct Foreign Investment? Evidence from Morocco," Industry and Energy Department Working Paper No.48, The World Bank, 1991.
- Katz, J., *Technology Generation in Latin American Manufacturing*,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7.
- \_\_\_\_\_, *Production Functions, Foreign Investment and Growth*, Amsterdam; North Holland, 1969.

- Knickerbocker, F.T., "Market Structure and Market Power Consequenc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Multinational Companies," Occasional Paper No. 8, Washington Centre for Multinational Studies, 1976.
- Lall, S., "Vertical Interfirm Linkages in LDCs: An Empirical Study,"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42, 1980.
- \_\_\_\_\_, "Multinationals and Market Structure in an Open Developing Country: the Case of Malaysia,"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979.
- Langdon, S.,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the Political Economy of Kenya*, London; Macmillan, 1981.
- Mansfield, E. and A. Romeo, "Technology Transfer to Overseas Subsidiaries by U.S.-based Firm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95, 1980.
- McAleese, D. and D. McDonald, "Employment Growth and Development of Linkages in Foreign-Owned and Domestic Manufacturing Enterprise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40, 1978.
- Newfarmer, R. and L. Marsh, "Industrial Interdependence and Development," University of Notre Dame, mimeo, 1981.
- Riedel, J., "The Nature and Determinants of Export-Oriented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a Developing Country: A Case Study of Taiwan," *Weltwirtschaftliches Archiv*, Band 111, 1975.
- Safarian, A. Edward, *Foreign Ownership of Canadian Industr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9.
- Steuer, M. D. et al.,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the United Kingdom*, London,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1973.

Tambunlertchai, S. and E. Ramstetter, "Foreign Firms in Promoted Industries and Structural Change in Thailand," in E. Ramstetter(ed.),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Asia's Developing Economies and Structural Change in the Asia-Pacific Region*, Westview Press, 1991.

Vernon, R., *Storm Over the Multinationals: the Real Issues*, London, Macmillan, 1977.

Willmore, L., "The Comparative Performance of foreign and Domestic Firms in Brazil," *World Development*, Vol. 14, No.4, 1986.

\_\_\_\_\_, "Determinants of Industrial Structure: a Brazilian Case Study," *World Development*, Vol. 17, 1989.

〈附錄〉 産業別 外國人投資의 規模, 比重 및 生産性

● 전체산업

(1) 규 모

(단위:백만원, 명)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평균매출	69,204	42,314	80,599	42,345
평균부가가치	17,905	9,619	17,944	7,739
평균고용	731	406	539	273
평균R&D	784	313	1,599	225
평균교육훈련비	166	55	196	36
평균로열티	193	45	434	25
평균유형자산(설비)	24,257	14,084	35,693	12,919
평균투자	-2,311	4,670	2,094	-4,402

(2) 비 중

(단위:%)

	1992년	1997년
매출	13.3	11.6
부가가치	14.8	13.8
고용	15.7	16.0
R & D	19.0	32.8
교육훈련비	21.8	27.2
로열티	28.7	54.2
유형자산	13.9	15.9

(3) 생산성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24.5	23.7	33.4	28.3
1인당 인건비(백만원)	12.6	12.6	17.8	15.1
노동장비율(백만원)	33.2	34.7	53.2	47.3
부가가치/총자산	0.25	0.21	0.18	0.17
부가가치/매출	0.26	0.23	0.22	0.18
R&D/매출	0.0113	0.0074	0.0198	0.0053
로열티/매출	0.0028	0.0011	0.0054	0.0006
교육훈련비/매출	0.0024	0.0013	0.0024	0.0009
1인당 교육훈련비(백만원)	0.226	0.137	0.364	0.132

● 음식료품

(1) 규 모

(단위:백만원, 명)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평균매출	56,828	54,321	76,454	43,835
평균부가가치	11,292	12,897	15,318	9,491
평균고용	454	674	388	479
평균R&D	11	168	38	79
평균교육훈련비	102	77	129	62
평균로열티	20	0.4	62	4.8
평균유형자산(설비)	14,720	19,503	18,425	15,296

(2) 비 중

(단위:%)

	1992년	1997년
매출	10.0	11.1
부가가치	8.5	10.3
고용	7.2	7.9
R & D	0.7	3.3
교육훈련비	12.3	12.8
로열티	83.6	47.6
유형자산(설비)	7.4	7.9

(3) 생산성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24.9	19.1	39.5	19.8
1인당 인건비(백만원)	12.3	10.0	18.7	10.9
노동장비율(백만원)	32.5	28.9	47.5	31.9
부가가치/총자산	0.30	0.24	0.34	0.22
부가가치/매출	0.20	0.24	0.20	0.22
R&D/매출	0.0002	0.0031	0.0005	0.0018
로열티/매출	0.0004	0.00001	0.0008	0.0001
교육훈련비/매출	0.0018	0.0014	0.0017	0.0014
1인당 교육훈련비(백만원)	0.23	0.11	0.33	0.13

● 섬유·의복·신발가죽

(1) 규 모

(단위:백만원, 명)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평균매출	109,619	29,158	109,427	27,989
평균부가가치	31,738	7,227	31,281	5,106
평균고용	1,071	488	662	291
평균R&D	1,486	90	3,272	133
평균교육훈련비	404	32	187	18
평균로열티	21	1.6	0	3.4
평균유형자산(설비)	55,987	12,074	56,962	11,214

(2) 비 중

(단위:%)

	1992년	1997년
매출	9.0	7.5
부가가치	10.3	11.2
고용	5.9	5.6
R & D	30.1	33.7
교육훈련비	25.1	17.4
로열티	25.4	0
유형자산	10.8	9.5

(3) 생산성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29.6	14.8	47.3	17.6
1인당 인건비(백만원)	11.5	8.0	20.2	10.1
노동장비율(백만원)	52.3	24.8	86.1	38.5
부가가치/총자산	0.24	0.21	0.18	0.16
부가가치/매출	0.29	0.25	0.29	0.18
R&D/매출	0.0136	0.0031	0.0299	0.0047
로열티/매출	0.0002	0.00006	0	0.0001
교육훈련비/매출	0.0037	0.0011	0.0017	0.0007
1인당 교육훈련비(백만원)	0.38	0.06	0.28	0.06



● 목재종이

(1) 규 모

(단위:백만원, 명)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평균매출	78,384	23,888	113,928	30,079
평균부가가치	23,352	5,769	34,018	7,080
평균고용	879	257	715	230
평균R&D	96	20	138	57
평균교육훈련비	53	21	249	21
평균로열티	30	0.5	722	3.1
평균유형자산(설비)	38,011	11,017	53,077	19,443

(2) 비 중

(단위:%)

	1992년	1997년
매출	12.3	12.5
부가가치	14.7	15.4
고용	14.6	14.0
R & D	16.8	8.4
교육훈련비	9.8	30.7
로열티	72.4	89.7
유형자산	12.8	9.4

(3) 생산성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26.6	22.4	47.6	30.8
1인당 인건비(백만원)	12.3	10.4	21.3	12.7
노동장비율(백만원)	43.3	42.8	74.3	84.7
부가가치/총자산	0.27	0.19	0.26	0.15
부가가치/매출	0.30	0.24	0.30	0.24
R&D/매출	0.0012	0.0008	0.0012	0.0019
로열티/매출	0.0004	0.00002	0.0063	0.0001
교육훈련비/매출	0.0007	0.0009	0.0022	0.0007
1인당 교육훈련비(백만원)	0.06	0.08	0.35	0.09

● 석 유

(1) 규 모

(단위:백만원, 명)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평균매출	25,748	665,897	39,828	16,820
평균부가가치	4,808	73,020	7,536	3,499
평균고용	152	1,108	151	81
평균R&D	31	1,671	19	3.8
평균교육훈련비	41	986	55	13
평균로열티	17	1,699	8.2	47
평균유형자산(설비)	3,307	254,189	5,406	2,792

(2) 비 중

(단위:%)

	1992년	1997년
매출	1.9	50.4
부가가치	3.2	48.0
고용	7.2	48.2
R & D	0.9	68.8
교육훈련비	2.0	64.0
로열티	0.5	6.9
유형자산	0.6	45.3

(3) 생산성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31.7	65.9	50.0	43.2
1인당 인건비(백만원)	17.0	16.6	25.3	16.8
노동장비율(백만원)	21.8	229.4	35.9	34.5
부가가치/총자산	0.27	0.11	0.27	0.25
부가가치/매출	0.19	0.11	0.19	0.21
R&D/매출	0.0012	0.0025	0.0005	0.0002
로열티/매출	0.0006	0.0026	0.0002	0.0028
교육훈련비/매출	0.0016	0.0015	0.0014	0.0008
1인당 교육훈련비(백만원)	0.27	0.89	0.37	0.17

● 화 학

(1) 규 모

(단위:백만원, 명)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평균매출	23,593	35,662	48,312	40,936
평균부가가치	6,832	9,862	10,627	10,640
평균고용	195	410	193	310
평균R&D	50	166	228	362
평균교육훈련비	40	72	50	62
평균로열티	75	53	187	61
평균유형자산(설비)	13,455	24,351	21,248	24,003

(2) 비 중

(단위:%)

	1992년	1997년
매출	13.9	19.2
부가가치	14.5	16.8
고용	11.2	13.1
R & D	6.8	11.3
교육훈련비	12.0	13.9
로열티	25.9	38.1
유형자산	11.9	15.1

(3) 생산성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35.1	24.1	55.2	34.3
1인당 인건비(백만원)	13.1	10.9	20.4	14.2
노동장비율(백만원)	69.2	59.4	110.3	77.5
부가가치/총자산	0.22	0.19	0.17	0.17
부가가치/매출	0.29	0.28	0.22	0.26
R&D/매출	0.0021	0.0047	0.0047	0.0088
로열티/매출	0.0032	0.0015	0.0039	0.0015
교육훈련비/매출	0.0017	0.0020	0.0010	0.0015
1인당 교육훈련비(백만원)	0.21	0.18	0.26	0.20

● 비금속

(1) 규 모

(단위:백만원, 명)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평균매출	47,608	23,618	73,103	22,967
평균부가가치	20,413	7,084	27,538	6,081
평균고용	723	259	589	178
평균R&D	77	55	35	65
평균교육훈련비	57	30	104	19
평균로열티	376	3.6	260	1.9
평균유형자산(설비)	34,667	14,777	68,708	11,694

(2) 비 중

(단위:%)

	1992년	1997년
매출	8.2	12.3
부가가치	11.3	16.6
고용	12.8	16.5
R & D	5.9	2.3
교육훈련비	7.7	19.7
로열티	82.2	85.6
유형자산	9.4	20.6

(3) 생산성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28.2	27.4	46.8	34.1
1인당 인건비(백만원)	17.6	11.8	26.5	15.3
노동장비율(백만원)	48.0	57.1	116.7	65.6
부가가치/총자산	0.26	0.21	0.18	0.19
부가가치/매출	0.43	0.30	0.38	0.26
R&D/매출	0.0016	0.0023	0.0005	0.0028
로열티/매출	0.0079	0.0002	0.0036	0.00008
교육훈련비/매출	0.0012	0.0013	0.0014	0.0008
1인당 교육훈련비(백만원)	0.08	0.12	0.18	0.10

● 금 속

(1) 규 모

(단위:백만원, 명)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평균매출	35,169	31,827	37,467	33,990
평균부가가치	8,491	6,846	8,840	5,487
평균고용	307	287	232	216
평균R&D	29	110	19	117
평균교육훈련비	35	23	20	15
평균로열티	2.5	1.7	5.6	0.9
평균유형자산(설비)	10,446	12,425	11,835	15,236

(2) 비 중

(단위:%)

	1992년	1997년
매 출	7.0	5.2
부 가 가 치	7.8	7.4
고 용	7.6	6.1
R & D	1.7	0.8
교 육 훈 련 비	9.5	6.4
로 열 티	9.3	24.5
유 형 자 산	5.4	3.7

(3) 생산성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27.6	23.8	38.1	25.4
1인당 인건비(백만원)	13.5	11.6	20.1	13.1
노동장비율(백만원)	34.0	43.3	51.0	70.5
부가가치/총자산	0.25	0.19	0.25	0.13
부가가치/매출	0.24	0.22	0.24	0.16
R&D/매출	0.0008	0.0035	0.0005	0.0035
로열티/매출	0.00007	0.00005	0.00015	0.00003
교육훈련비/매출	0.0010	0.0007	0.0005	0.0004
1인당 교육훈련비(백만원)	0.11	0.08	0.09	0.07

● 기계장비

(1) 규 모

(단위:백만원, 명)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평균매출	12,492	22,960	20,816	30,458
평균부가가치	3,684	6,277	5,207	7,973
평균고용	170	332	179	342
평균R&D	46	535	50	949
평균교육훈련비	32	47	46	58
평균로열티	60	48	61	20
평균유형자산(설비)	3,462	7,348	6,043	13,206

(2) 비 중

(단위:%)

	1992년	1997년
매출	7.9	6.5
부가가치	8.4	6.3
고용	8.4	8.6
R & D	1.3	0.5
교육훈련비	9.7	7.5
로열티	16.5	24.1
유형자산	6.9	4.5

(3) 생산성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21.7	18.9	29.1	23.3
1인당 인건비(백만원)	12.5	11.1	16.6	11.9
노동장비율(백만원)	20.4	22.1	33.7	38.6
부가가치/총자산	0.28	0.22	0.23	0.17
부가가치/매출	0.29	0.27	0.25	0.26
R&D/매출	0.0037	0.0233	0.0024	0.0312
로열티/매출	0.0048	0.0021	0.0029	0.0006
교육훈련비/매출	0.0026	0.0020	0.0022	0.0019
1인당 교육훈련비(백만원)	0.19	0.14	0.26	0.17

● 전기전자

(1) 규 모

(단위:백만원, 명)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평균매출	101,848	43,066	163,223	24,797
평균부가가치	26,106	10,805	35,284	4,685
평균고용	1,143	579	1,107	232
평균R&D	2,137	2,086	4,532	382
평균교육훈련비	325	109	498	24
평균로열티	327	245	914	16
평균유형자산(설비)	28,166	15,498	59,790	6,834

(2) 비 중

(단위:%)

	1992년	1997년
매출	39.4	59.9
부가가치	39.9	63.1
고용	37.4	59.2
R & D	22.0	72.9
교육훈련비	45.1	82.4
로열티	26.9	92.9
유형자산	33.3	66.5

(3) 생산성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22.8	18.7	31.9	20.2
1인당 인건비(백만원)	11.4	8.7	16.8	11.0
노동장비율(백만원)	24.6	26.8	54.0	29.5
부가가치/총자산	0.29	0.23	0.21	0.18
부가가치/매출	0.26	0.25	0.22	0.19
R&D/매출	0.0210	0.0484	0.0278	0.154
로열티/매출	0.0032	0.0057	0.0056	0.0006
교육훈련비/매출	0.0032	0.0025	0.0030	0.0010
1인당 교육훈련비(백만원)	0.28	0.19	0.45	0.10

● 운송장비

(1) 규 모

(단위:백만원, 명)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평균매출	270,094	54,393	57,662	31,194
평균부가가치	59,945	15,380	13,517	6,948
평균고용	2,427	726	587	308
평균R&D	2,311	859	3,603	688
평균교육훈련비	502	122	106	39
평균로열티	863	187	241	89
평균유형자산(설비)	74,327	20,770	26,044	13,245

(2) 비 중

(단위:%)

	1992년	1997년
매 출	42.3	17.5
부 가 가 치	36.6	18.2
고 용	36.1	24.1
R & D	28.4	37.5
교 육 훈 련 비	37.8	23.6
로 열 티	40.6	23.6
유 형 자 산	34.6	18.4

(3) 생산성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24.7	21.2	23.0	22.5
1인당 인건비(백만원)	14.3	12.0	14.4	12.7
노동장비율(백만원)	30.6	28.6	44.4	43.0
부가가치/총자산	0.22	0.23	0.10	0.19
부가가치/매출	0.22	0.28	0.23	0.22
R&D/매출	0.0086	0.0158	0.0625	0.0220
로열티/매출	0.0032	0.0034	0.0042	0.0029
교육훈련비/매출	0.0019	0.0022	0.0018	0.0013
1인당 교육훈련비(백만원)	0.21	0.17	0.18	0.13



● 기타 제조업

(1) 규 모

(단위:백만원, 명)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평균매출	27,441	22,150	12,971	18,449
평균부가가치	10,825	5,994	3,573	4,814
평균고용	939	433	205	239
평균R&D	194	34	0	60
평균교육훈련비	72	27	24	23
평균로열티	21	0.02	73	0
평균유형자산(설비)	12,709	6,410	8,255	5,352

(2) 비 중

(단위:%)

	1992년	1997년
매출	7.8	2.6
부가가치	11.0	2.7
고용	13.8	4.2
R & D	27.9	0
교육훈련비	15.4	3.8
로열티	98.7	1
유형자산	11.9	5.5

(3) 생산성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11.5	13.8	17.5	20.2
1인당 인건비(백만원)	8.9	8.7	16.5	12.1
노동장비율(백만원)	13.5	14.8	40.3	22.4
부가가치/총자산	0.37	0.26	0.13	0.27
부가가치/매출	0.39	0.27	0.28	0.26
R&D/매출	0.0071	0.0015	0	0.0032
로열티/매출	0.00078	0.000009	0.00564	0
교육훈련비/매출	0.0026	0.0012	0.0018	0.0013
1인당 교육훈련비(백만원)	0.08	0.06	0.12	0.10

● 서비스업

(1) 규 모

(단위:백만원, 명)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평균매출	26,358	57,262	67,958	60,257
평균부가가치	11,015	11,125	12,817	9,305
평균고용	487	324	531	267
평균R&D	25	41	320	99
평균교육훈련비	69	48	211	39
평균로열티	33	8.8	784	31
평균유형자산(설비)	22,061	10,712	49,376	12,000

(2) 비 중

(단위:%)

	1992년	1997년
매출	1.5	2.9
부가가치	3.2	3.6
고용	5.1	7.3
R & D	2.0	8.0
교육훈련비	4.6	12.6
로열티	10.9	40.6
유형자산	6.4	10.0

(3) 생산성

	1992년		1997년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외투기업	내국인기업
1인당 부가가치(백만원)	22.6	34.3	24.1	34.9
1인당 인건비(백만원)	13.0	19.4	18.5	19.4
노동장비율(백만원)	45.3	33.0	92.9	45.0
부가가치/총자산	0.28	0.22	0.11	0.16
부가가치/매출	0.42	0.19	0.19	0.15
R&D/매출	0.0009	0.0007	0.0047	0.0016
로열티/매출	0.0012	0.00015	0.0115	0.0005
교육훈련비/매출	0.0026	0.0008	0.0031	0.0007
1인당 교육훈련비(백만원)	0.14	0.15	0.40	0.15

## ■ 論 評

### 俞 成 敏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 논문은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지를 기업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 이후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에서 볼 때 시의적절한 논문으로 사료된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 중에서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는데, 전반부에서는 이론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어떠한 메커니즘들을 통하여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하게 다루었고,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가능성들을 개별 기업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생산성이 해당산업의 국내기업들보다 높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해당산업에 속한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류했다. 직접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해당산업에 속한 국내기업들보다 생산성이 높아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국내진출 자체가 그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의미하고, 간접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해당산업에 진입함으로써 해당산업 내에서의 경쟁이 격화되어서 국내

기업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외국인투자기업들에 취업해서 기술을 익힌 인력들이 국내기업들에 재취업함으로써 기술이 이전되어 국내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이 논문의 실증적 분석의 결과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해당산업의 생산성에 미친 직접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들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생산성에 대하여 상당히 의미 있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해당산업의 생산성에 미친 간접효과, 즉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해석과 보다 많은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 것 같다.

직접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생산성이 해당산업에 속한 국내기업들보다 높다는 실증적 분석의 결과는 기존의 다국적기업이론과 부합한다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이론에서는 외국기업들이 투자유치국에 진출할 때에는 기술이나 경영노하우 등의 측면에서 투자유치국의 국내기업들보다 우월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어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외국인기업들의 상대적 약점, 투자유치국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외국인기업들의 상대적 약점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외국에 직접투자를 할 때에는 그 기업 고유의 우위(firm-specific advantage)가 있어야 투자유치국의 국내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도 이러한 외국인투자기업 고유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직접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결과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높은 노동생산성은 해당산업의 국내기업들에 비해서 보다 높은 자본집

약도, 보다 우수한 피고용자들, 보다 많은 교육훈련비 등에 의해서 상당부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노동생산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에서 노동생산성을 기업의 매출액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존재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두 개의 독립변수들로 회귀분석한 모델 1의 경우와 모델 1에 자본집약도, 피고용자의 질,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비 등의 독립변수들을 추가한 모델 2의 회귀분석의 결과들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모델 2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존재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추정계수의 값이 모델 1에서보다 현저히 낮아졌는데, 이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높은 노동생산성이 자본집약도, 피고용자의 질, 교육훈련비 등에 의해서 상당부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간접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논문의 실증분석에서 해당산업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생산, 매출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추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 즉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결론은 좀 비약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 $FS$ )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에서 이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점은 단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해당산업에서의 비중이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해당산업에서 외국기업들의 숫자나 비중이 늘어난다고 해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사실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해당산업에 진입했을 때 그 산업 내에 있는 국내기업들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해당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산업들을 좀더 세분하여 그 산업 내에 외국투자기업들의 존재여부를 더미변수로 하여 국내산업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좋겠다.

간접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록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국내진출이 해당산업의 노동생산성에 미친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거의 없다는 저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들에 대한 분석은 좀더 많은 증거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 원인들로 한국의 시장경쟁규칙의 미확립, 노동시장의 경직성, 산업입지정책의 비효율성 등을 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이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국내의 시장경쟁규칙의 미확립을 원인으로 생각해 본다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산업들에서 국내기업들의 노동생산성 분포를 구하여 하위 20%의 노동생산성을 가진 국내기업들의 최근 몇년간의 수익률을 조사하여 이 기업들의 수익률이 해당산업전체의 수익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거나 음의 값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퇴출되지 않았다면 시장경쟁규칙의 미확립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논문의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에서 설명되었듯이 캐나다, 멕시코, 모로코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에서는 외국인투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외국인투자가 투자유치국의 해당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가정한다면 캐나다, 멕시코, 모로코 등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역사가 오래되어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 나타난 반면에 한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국내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위에서 간접효과에 관한 실증적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과 앞으로의 연구과제들을 지적했지만 이 논문은 외국인투자가 한국의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외국인투자가 한국의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사료된다.

## 韓 震 熙

(본원 연구위원)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데 반해 외국인투자의 국내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에 관한 분석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시적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이 연구는 그 중요성이 크고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첫째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하고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둘째 과연 외국인투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의 첫 번째 결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비해 월등히 노동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기업규모, 자본장비율, 노동력의 질, R&D 및 기술도입 등 기업간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일반적인 요인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음을 보

여주고 있다. 저자는 이 결과를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결정요인이 우월한 기술 및 경영능력 등 기업고유의 우위(firm-specific advantages)라는 이론과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논문의 두 번째 결과는 외국인투자가 국내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외국문헌이나 통상적인 믿음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저자는 외국인투자의 국내기업 생산성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가 이와 같은 효과가 잠재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내기업에 대한 퇴출장벽,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입지정책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분석방법이나 논리의 전개상 대체로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논문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점 혹은 제안하고 싶은 점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논문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업에 관한 파급효과가 관찰되지 못한 것이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업 퇴출장벽,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입지정책의 문제점 등 때문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국내기업에 관한 파급효과가 잠재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퇴출장벽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효과가 실현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혹은 실체는 생산성 파급효과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이를 간파하지 못한 것인지 그리 분명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자의 주장을 독자에게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퇴출장벽, 노동시장의 경직성, 입지정책의 문제점 등에 관한 분석이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저자는 외국인투자기업 더미변수인 *FOREIGN*이라는 변수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 ‘설명되지 않는 생산성 차이’가 존재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되지 않는 차이의 원인을 밝힐 수 있다면 훨씬 더 재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예를 들어, 외국인의 지분율(세미나에서 이 변수가 이용 가능하다고 들었음)과 같은 변수를 추가할 경우 *FOREIGN*의 계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본다면 노동생산성의 차이가 과연 외국인기업의 고유우위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 더 흥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셋째, 국내기업의 노동생산성을 그 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본고에서 *FS*)으로 설명하려 하면 기본적으로 *FS*라는 변수가 산업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변수이기 때문에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 않았을까 의심이 되는데, 산업의 생산성과 산업의 *FS*와의 관계를 보면 더욱 유용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넷째, 외국인투자의 국내기업 생산성과급효과에 관한 시차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기간을 몇년씩 두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보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자는 세미나에서 기존 국내기업이 외자유치를 통해 외국인지분율이 10% 이상으로 상승한 관측치는 제거하였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이러한 관측치가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예를 들어, 분석기간 중 국내기업이었으나 외국인지분율이 10% 이상으로 상승함으로써 외국인의 지분비율이 높아진 기업에 대해 지분율 상승 이전 및 이후의 생산성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있는 주제라고 생각된다. 이

러한 관측치를 제거한 것은 매우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자료 및 자료의 처리에 관한 서술이 독립적인 소절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기업재무제표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식별한 방법과 같은 것은 명시적으로 기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연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성효과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충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향후의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 THE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A Quarterly Journal Published in Korean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Vol. 21, No. 3, 4

1999. III · IV

Empirical Evidence on Opportunistic Tax  
Collection

*Youngsun Koh*

Comment : *Chong-Bum An / Jin Kwon Hyun*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in Exchange  
Rate Stabilization in Post-Crisis Korea  
– Evidence from Daily Data –

*Dongchul Cho  
Kenneth D. West  
Sungchul Hong*

Comment : *Yeongseop Rhee / Inseok Shin*

Labor Market Policy after the Economic Crisis

*Gyeongjoon Yoo*

Comment : *Dae Il Kim / Dongho Jo*

Sources of East Asian Growth: Some Evidence  
from Cross-Country Studies

*Chin Hee Hahn  
Jong-il Kim*

Comment : *Byung-Ho Song / Kiseok Hong*

Productivity Effects of Foreign-Invested Firms

*Seungjin Kim*

Comment : *Sung Min Yoo / Chin Hee Hahn*

---

For subscription to THE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please contac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P.O. Box 113, Chongnyang, Seoul, Korea  
Fax : (961) 5092. Tel : (958) 4114

## ■ 論評 및 書評 寄稿案内 ■

本誌 編輯委員會는 本誌에 발표된 論文과 本院에서 발간된 單行本 및 각종 報告書에 대한 院內外 專門家들의 論評과 書評의 寄稿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研究主題 및 그 內容과 관련되는 研究方法論 또는 國家政策上的의 爭點을 表出시켜 앞으로의 研究課題와 政策方案 設定에 寄與하고, 아울러 實質的이고 建設的인 批判과 討論의 習慣을 造成하자는 趣旨에서 아래와 같은 要領으로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讀者 여러분의 많은 參與를 바랍니다.

### > 아 래 <

1.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기준 30장 안팎(PC로 작성한 원고는 걸장에 200자 원고지 기준 충분량을 표시할 것)
2. 원고내용 : 論評은 해당 논문에 담긴 誤謬 혹은 爭點을 內容으로 하여 가급적이면 論文이 발표된 후 3개월 이내로, 書評은 해당 보고서의 主要內容 紹介, 寄與度 및 問題點 評價, 그리고 앞으로의 研究課題 提示를 內容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보고서가 발간된 후 6개월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 출 처 : 우편 또는 인편으로 『KDI 政策研究』編輯委員長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 타 : 제출된 원고는 本院이 정한 審査節次를 거쳐 신게 되며, 채택된 원고는 稿料를 드립니다.

# 研究報告書 案內

## 企業整理

第71-01卷	企業整理에 대한 意見	金滿堤
第71-02卷	金利引下的 可能性	金滿堤
第71-03卷	農業開發戰略과 米穀需給政策의 評價	金滿堤

## 總資源

第72-01卷	總資源豫算을 위한 成長戰略(1972~73年)	KDI
第72-02卷	새 政策의 選擇을 위한 決斷	金滿堤 朴宗淇
第72-03卷	1973年度 豫算規模의 計測	金完淳
第72-04卷	開館紀念 심포지움 發表論文集	KDI
第72-05卷	韓國經濟 安定化를 위한 提言	下村治
第72-06卷	成長과 安定政策에 관한 研究	KDI
第72-07卷	長短期計劃을 위한 諸模型(잠정)	金榮奉 外

## 主要原資材

第73-01卷	主要原資材에 대한 國際市場 分析和 價格展望	KDI
第73-02卷	社會保障年金制度를 위한 方案	朴宗淇 金大泳
第73-03卷	韓國經濟의 產業聯關分析	宋丙洛
第73-04卷	主要穀物の 國際需給事情과 價格動向	KDI
第73-05卷	우리나라 教育投資의 經濟的 價值分析	南祐鉉 鄭暢泳
第73-06卷	우리나라 交通計劃과 政策	宋丙洛

## 政府

第74-01卷	政府 主要農產物 備蓄事業效果分析	文八龍 柳炳瑞
第74-02卷	輸出 100億弗 目標와 歐洲市場展望	洪元卓 外
第74-03卷	重化學工業推進을 위한 國家持株會社의 活用方案	司空壹 外
第74-04卷	公企業 任員의 社會的 背景	俞 焄

## 豫算制度

第75-01卷	豫算制度 改善에 관한 研究	金迪教
第75-02卷	서울市內 生産 및 所得推計(1973)	金大泳
第75-03卷	우리나라 商品輸出의 長期展望(1973~81)	宋熙季 外

第75-04卷	우리나라 教育의 需要形態 및 經濟成長 寄與分析	金榮奉
第75-05卷	우리나라 人口의 推計(1960~2040)	金大泳
第75-06卷	鐵鋼景氣의 測定分析과 豫測模型	金胤亨
第75-07卷	鐵鋼産業의 景氣와 長期需要展望	宋熙季
第75-08卷	서울市內 生産 및 市民分配所得(1974)	金大泳 洪性德
第75-09卷	韓國製造業의 賃金隔差構造	金光錫 外
第75-10卷	韓國 首都圈의 空間經濟分析	宋丙洛
第75-11卷	韓國 에너지産業의 需要分析과 豫測	金胤亨 金炳穆
第75-12卷	우리나라 貿易構造의 推定(1977~86)	洪元卓
第75-13卷	內國稅의 稅目別 稅收豫測方法	朴宗洪
第75-14卷	纖維工業의 成長過程과 生産構造	金榮奉
第76-01卷	우리나라 人口移動의 特徵(1965~70)	金大泳 李孝求
第76-02卷	長期雇傭 및 技術人力計劃	金秀坤
第76-03卷	서울市內 生産 및 市民分配所得(1975)	金大泳 洪性德
第77-01卷	農家所得의 決定要因 分析	姜奉淳 文八龍
第77-02卷	IBRD借款 中規模型 水利事業 評價分析	文八龍 外
第78-01卷	1968~73年 韓國鑛工業 産業資本스톡推計	朱鶴中
第78-02卷	合板工業의 成長	宋熙季 孫炳岩
第79-01卷	우리나라 製造業의 生産性分析(1966~75)	金迪教 孫讚
第79-02卷	輸送部門의 投資事業審查指針	鄭丙壽
第79-03卷	韓國海外移民研究	洪思媛 金思憲
第79-04卷	石油化學工業의 長期展望	金浩卓
第79-05卷	韓國의 育兒費와 出生力	具成烈
第79-06卷	韓國機械工業의 構造와 展望	金迪教 編
第79-07卷	韓國의 칼라TV工業	金榮奉
第79-08卷	韓國經濟의 短期豫測模型	李天杓

第79-09卷	韓國의 輸入構造 및 輸入政策	徐錫泰
第80-01卷	水資源·工業團地造成部門의 投資事業審査分析	林栽煥
第80-02卷	인플레이와 企業成長能力	張榮光
第80-03卷	農業機械化의 政策課題	文八龍
第80-04卷	產業別 投入係數의 變化와 推定	金圭洙
第80-05卷	韓國의 自動車工業	李徹熙
第80-06卷	農業機械化의 投資效果分析	林栽煥
第81-01卷	社會保障制度改善을 위한 研究報告書	朴宗淇 外
第81-02卷	韓國金屬工業의 展望과 政策課題	南宗鉉 編
第81-03卷	自動車工業의 發展方向과 政策	金榮奉
第81-04卷	福祉社會의 人力政策과 職業安定	金秀坤 外
第81-05卷	固體廢棄物 管理現況과 改善方案	鄭文植
第81-06卷	5次計劃을 위한 都市化問題의 研究	宋丙洛
第81-07卷	韓國製造業의 產業集中分析	李奎億 徐鎭教
第81-08卷	農業信用事業의 經濟性分析	林栽煥
第81-09卷	韓國 資本主義經濟體制 發展을 위한 研究	黃秉泰
第81-10卷	韓國의 產業誘因政策과 產業別 保護構造分析	南宗鉉
第81-11卷	對外去來自由化와 韓國經濟	金重雄
第81-12卷	景氣綜合指數作成에 관한 研究報告書	徐相穆 編
第81-13卷	貧困의 實態와 零細民對策	徐相穆 外
第82-01卷	糧政轉換을 위한 食糧安保備蓄制度	柳炳瑞
第82-02卷	名目 및 實效保護率 構造의 長期的 變化	金光錫 洪性德
第82-03卷	韓國製造業의 產業別 生産構造	金栽元
第82-04卷	勞使關係 事例研究	金秀坤 外
第82-05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2年度)	朴宗淇 編 李奎億
第82-06卷	1960~77年 韓國產業資本스톡推計	朱鶴中 外

第82-07卷	農外所得増大를 위한 綜合對策	柳炳瑞 外
第82-08卷	主要農業政策 改善方案	柳炳瑞 外
第82-09卷	產業政策의 基本課題와 支援施策의 改編方案	楊秀吉
■		
第83-01卷	醫療保險의 政策課題와 發展方向	延河清 外
第83-02卷	世界經濟環境變化와 當面課題	金重雄
第83-03卷	勞使關係 政策課題와 方向	金秀坤 編
第83-04卷	80年代 勞使關係發展을 위한 懇談會 報告書	KDI
第83-05卷	勞使協議制 研究	朴世逸 外
第83-06卷	都給組織의 現況 및 都給去來의 增進方案	金栽元
第83-07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3年度)	崔 洸 編
第83-08卷	短期金融市場의 當面課題와 發展方向	李德勳
第83-09卷	經濟安定化政策과 企業經營의 改善	洪炳裕
第83-10卷	都市行政의 發展的 機能과 改善方向	黃仁政
■		
第84-01卷	韓國稅制의 主要政策課題와 改善方向	崔 洸 編
第84-02卷	退職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閔載成 外
第84-03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4年度)	金重雄 編 崔 洸
第84-04卷	金融國際化의 當面課題와 政策方向	金重雄 外
第84-05卷	인플레期待와 經濟安定	李啓植
第84-06卷	市場과 市場構造	李奎億 外
■		
第85-01卷	產業高度化에 따른 農業構造의 改編方向	宋大熙 柳炳瑞
第85-02卷	企業結合과 經濟力集中	李奎億 外
第85-03卷	乘法 季節ARIMA模型의 構造識別方法	呂運邦 孫英淑
第85-04卷	海外先物市場의 活用方案	李 煥 外
第85-05卷	減價却制度와 資本所得課稅	郭泰元
第85-06卷	第2金融圈의 發展과 業務領域調整	李德勳
第85-07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5年度)	李啓植 編 郭泰元



第85-08卷	特許制度의 經濟的 效果分析	鄭鎮勝
第86-01卷	租稅政策과 稅制發展	郭泰元 編 李啓植
第86-02卷	金融產業發展에 관한 研究, 1985~2000	朴英哲 外
第86-03卷	私學運營의 課題와 改善方案	朴烜求 外
第86-04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6年度)	郭泰元 編 李啓植
第86-05卷	國民年金制度의 基本構想과 經濟社會 波及效果	閔載成 外
第86-06卷	Social Development in Action	黃仁政
第86-07卷	Financial Development Policies and Issues	金重雄 編
第86-08卷	Industrial Development Policies and Issues	李奎億 編
第86-09卷	證券市場의 發達과 機關投資家의 役割	李德勳 張忠植
第87-01卷	商品去來所의 設立에 관한 研究	李 煥 外
第87-02卷	公企業經營評價의 理論的 背景과 技法	宋大熙 外
第87-03卷	우리나라 金融政策運營現況과 改善方案	鄭健溶
第87-04卷	Macroeconomic Policy and Industrial Development Issues	司空壹 編
第87-05卷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司空壹 編
第87-06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7年度)	延河清 編 李啓植
第87-07卷	에너지部門의 政策課題와 改善方案	李 煥
第87-08卷	住宅金融의 現況과 發展方向	姜文秀 金重雄
第87-09卷	地方工業의 特性和 育成政策	金鍾基 外
第88-01卷	公企業의 民營化에 관한 研究	姜信逸
第88-02卷	社會保障制度의 政策課題와 發展方向	延河清 外
第88-03卷	金融先物과  옵션市場의 活用方案	李 煥 外
第88-04卷	社會福祉傳達體系의 改善과 專門人力活用方案	徐相穆 外
第88-05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8年度)	郭泰元 編 李啓植
第88-06卷	日本經濟社會의 進화와 韓日貿易	李奎億 外

第88-07卷	輸入自由化의 經濟的 效果와 產業調整政策	金光錫
第89-01卷	리스產業의 發展方案	李 炘 外
第89-02卷	研究開發과 市場構造 및 生産性	金迪教 趙炳澤
第89-03卷	產業技術開發支援政策의 現況과 改善方案	鄭俊石
第89-04卷	國家報勳報償制度의 改編方案	閔載成 金龍夏
第89-05卷	經濟規制와 競爭政策	李奎億 編
第89-06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89年度)	沈相達 編 李啓植
第89-07卷	金融環境變化와 綜合金融會社의 位相	南相祐 外
第89-08卷	經濟의 國際化와 中小企業의 產業調整	朴竣卿
第90-01卷	稅收推計 模型開發에 관한 研究	盧基星 外
第90-02卷	韓國의 適正賃金	張鉉俊 金在源
第90-03卷	地方公企業의 課題와 發展方向	宋大熙
第90-04卷	企業集團과 經濟力集中	李奎億 李在亨
第90-05卷	醫療保險制度의 改善을 위한 政策方案	權純源 外
第90-06卷	證券產業發展을 위한 研究	李永琪 外
第90-07卷	地域發展과 地方財政	李啓植 外
第90-08卷	韓國의 退職金制度와 企業年金制度 導入方案	閔載成 外
第90-09卷	中產層實態分析과 政策課題	延河清 外
第90-10卷	中小企業의 產業調整과 中小企業支援施策의 改善方向	姜文秀 外
第90-11卷	經濟規制와 競爭政策(II)	李奎億 編
第90-12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0年度)	宋大熙 編 權純源
第90-13卷	經濟開放과 巨視經濟運用	朴元巖 外
第90-14卷	國民年金財政의 安定化를 위한 政策課題 및 方向	南相祐 外
第91-01卷	開放化와 下都給體制의 改編	金周勳 趙觀行
第91-02卷	法經濟研究(I)	李奎億 外

第91-03卷	金利自由化的 課題와 政策方向	南相祐 外 李啓植 編
第91-04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1年度)	盧基星 編
第91-05卷	國民年金基金의 福祉部門 活用方案	閔載成 外
第91-06卷	產業化過程과 經濟制度의 對應	李奎億 編
第92-01卷	우루과이라운드의 規律分野協商과 產業·貿易政策의 改善方向	南宗鉉 泰 張義 泰
第92-02卷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른 中央·地方財政機能의 再定立	宋大熙 編 盧基星 編
第92-03卷	廣告의 產業組織과 規制	李奎億 劉承旻
第92-04卷	舊東獨의 私有化方案 및 失業對策	高日東 外
第92-05卷	構造變化와 雇傭問題	朴竣卿 金政鎬
第92-06卷	製造業의 總要素生産性動向과 그 決定要因	金光錫 外
第92-07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2年度)	宋大熙 編 柳一鎬 編
第92-08卷	韓國經濟의 產業貿易模型	李元暎
第93-01卷	國內銀行의 經營效率性 比較分析	孫承泰
第93-02卷	產業保護와 誘因體系의 歪曲	俞正鎬 外
第93-03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3年度)	宋大熙 編 文亨杓 編
第93-04卷	韓國의 老齡化 推移와 老人福祉對策	閔載成 外
第93-05卷	低所得層의 生活安定과 自立對策	權純源 外
第94-01卷	地域金融의 活性化와 새마을금고의 發展	李德勳 外
第94-02卷	產災保險 財政運營方式 開發에 관한 研究	閔載成 外
第94-03卷	美日構造調整協議의 展開와 競爭政策	崔鍾元
第94-04卷	國際化時代의 韓國經濟運營	左承喜
第94-05卷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4年度)	盧基星 編 柳一鎬 編
第94-06卷	外國人直接投資와 投資政策	李弘求
第94-07卷	우리나라 自動車產業의 當面課題와 產業組織政策	劉承旻 外
第94-08卷	競爭政策의 國際比較：美國·日本·獨逸	申光湜

第95-01卷	金融自律化에 따른 生命保險產業의 對應方案	羅東敏
第95-02卷	韓·臺·日의 輸入依存構造比較	俞正鎬
第95-03卷	法經濟研究(II)	李奎億 外
第95-04卷	國際化時代의 金融制度	崔範樹 李炯周
第95-05卷	北韓의 外國人投資制度和 對北投資 推進方案	全洪澤 外
第95-06卷	調達市場의 效率化·開放化 方案	南逸聰 外
第95-07卷	國民年金制度의 財政健實化를 위한 構造改善方案	文亨杓
第95-08卷	韓國教育財政의 現況과 改革方向	尹建永
第96-01卷	OECD加入과 資本自由化	朴元巖
第96-02卷	金融의 效率性提高와 金融規制 緩和	姜文秀 外
第96-03卷	金融自由화와 金融監督	姜文秀
第96-04卷	製造業 總要素生產性的 長期的 變化	洪性德 金政鎬
第96-05卷	北韓의 經濟特區	朴貞東
第96-06卷	金融의 汎世界化和 證券產業의 構造改編	李德勳 崔範樹
第96-07卷	南北韓 經濟統合時의 經濟·社會 安定化 對策	朴進
第96-08卷	中小企業의 構造調整과 知識集約化	金周勳
第96-09卷	韓國 物價變動構造의 分析和 政策對應	朴佑奎 外
第96-10卷	僱傭對策과 人的資源開發	李周浩
第96-11卷	地域利己主義의 經濟的 理解와 效率的 葛藤調整方案	金在亨
第96-12卷	經濟世界化時代의 巨視經濟運營	左承喜 編
第96-13卷	與信專門金融產業의 特性和 發展方案	李德勳 外
第96-14卷	中小·벤처企業의 發展과 場外市場의 活性化	崔範樹 李基煥
第96-15卷	中央·地方政府間 關係 및 財源調整	李啓植 外
第96-16卷	경제체제 전환기의 노동정책	조동호
第96-17卷	地方化時代의 政策課題와 制度改善方向	盧基星 編

CONTENTS

- 第97-01卷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資誘致制度的  
改善方向 盧基星  
鄭源浩
- 第97-02卷 産業構造의 長期變化와 中小企業의 發展方向 朴俊卿
- 第97-03卷 海外直接投資의 要因 및 效果分析 金承填
- 第97-04卷 WTO時代의 新通商議題 申光湜 編

CONTENTS

- 第98-01卷 研究開發의 世界化·地域化와 技術革新政策 朴俊卿
- 第98-02卷 轉換期の 對北政策과 南北經協 朴進外
- 第98-03卷 우리나라 金融産業의 發展構圖 李德勳外
- 第98-04卷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노기성의
- 第98-05卷 社會保險과 民營保險의 效率的 連繫方案 李德勳外
- 第98-06卷 通信料金 規制制度의 發展方案 南逸聰外
- 第98-07卷 企業退出的 經濟分析과 改善方案 具本天

CONTENTS

- 第99-01卷 21世紀를 指向한 生命保險産業의 發展方案 羅東敏外
- 第99-02卷 事業者團體와 競爭政策 李在亨
- 第99-03卷 북한의 노동제도와 노동력 실태 조동호
- 第99-04卷 韓國 市場經濟와 民主主義의 歷史的 特質 李榮薰

## 新刊案内

### 産業成長과 構造變化에 대한 寄與度 分析(1975~95)

半洋裝/16切判/122쪽/定價 4,000 원 / 李鎮勉·洪性德 著

### 中期財政計劃(1998~2002年)의 主要政策課題

半洋裝/16切判/106쪽/定價 4,000 원 / 高 英 先 編

### OECD 한국경제보고서(1999)

반양장/18절판/250쪽/정가 10,000 원 / 한국개발연구원·재정경제부 공역

### 韓國實學과 經濟倫理

半洋裝/18切判/278쪽/定價 12,000 원 / 林 元 澤 著

### Economic Crisis and Its Social Consequences

半洋裝/18切判/160쪽/定價 7,000 원 / 文 亨 杓 外

### 북한의 노동제도와 노동력 실태

반양장/18절판/194쪽/정가 7,000 원 / 조 동 호 저

### 韓國 市場經濟와 民主主義의 歷史的 特質

半洋裝/18切判/150쪽/定價 6,000 원 / 李 榮 薰 著

### Managing Education Reform

반양장/16절판/76쪽/정가 4,000 원 / 박 세 일 저

### 민영화와 집단에너지사업

반양장/18절판/274쪽/정가 11,000 원 / 임 원 혁 의

### IMF 이후 분배구조 및 빈곤의 변화와 외국의 정책방향

반양장/16절판/ 54쪽/정가 4,000 원 / 유 경 준 저

### Reforming Labor Management Relations

반양장/16절판/96쪽/정가 4,000 원 / 박 세 일 저

## ■ KDI 圖書會員制 案內 ■

### ■ 會員에 대한 特典

- 會員加入期間(1년)중 本 研究院이 발간하는 모든 刊行物을 우송해 드립니다. (단, 自體資料 및 配布制限資料는 제외)

### ■ 會 費 개인회원 : 10만원/기관회원 : 15만원

### ■ 加入方法 :

- 직접 本院 發刊資料相談室에 회비를 납입하거나,
- 가까운 우체국의 本院 우편대체계좌  
(계좌번호 : 010983-31-0514919)에 납입하면 됨.

### ■ 問議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의 41 우편번호 : 130-012  
KDI 발간자료상담실(Tel. 958/4326~7)

### KDI 圖書 販賣處

- |                      |               |
|----------------------|---------------|
| • 서울 : 교보문고(정부간행물코너) | Tel. 397-3628 |
| 중로서적(3층 사회관)         | Tel. 733-2331 |
| 영문문고(정부간행물코너)        | Tel. 399-5632 |
| • 부산 : 영광도서(정부간행물코너) | Tel. 816-9500 |
| • 대구 : 학원서림(1층 2매장)  | Tel. 425-0050 |